

Ethylene, LG 파업 100달러 폭등!

FOB Korea 945-955달러 형성 ... 여수지역 나프타 공급차질 우려로

Ethylene 가격은 7월23일 FOB Korea 톤당 945-955달러로 무려 10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7월19일부터 시작된 LG-Caltex정유의 파업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상승했다.

LG정유가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 여천NCC, LG석유화학에 나프타를 공급하고 있어 석유정제 플랜트 가동 차질로 나프타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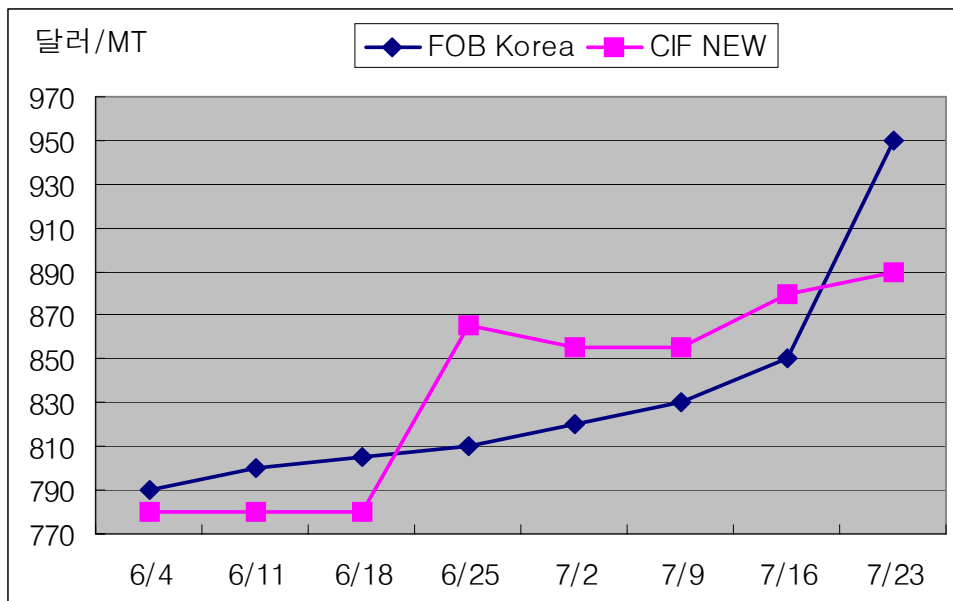
여천NCC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도 에틸렌 가격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시아 Spot 시장은 여천NCC의 에틸렌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SM 가격이 FOB Korea 톤당 1300달러를 넘어선 것도 에틸렌 가격폭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PE 생산기업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데, 현대석유화학은 PE 플랜트 가동보다 에틸렌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7월23일 CIF NWE 톤당 880-900달러로 10달러 상승하는데 그쳤다.

<화학저널 2004/07/28>